

30주년을 맞은 은혜의교회

사람이 꽃보다
아름답다!



박정식 목사는 칼빈신학교와
총회신학교, 합동신학교 신학연구원을 졸업하고,
총회신학교 신학연구원에서 목회학을,
연세대학교 연합신학대학원에서 상담학을 전공했다.
현재 인천 은혜의교회 담임목사와
전국 CAL-NET 이사로 섬기고 있다.

“목사님! 인천 달동네에서도 제자훈련 목회가 됩니까?” 고 (故) 옥한흠 목사가 생전에 서울신학교 대학원생들에게 특강을 한 이후 받은 질문이다. “목사님, 오늘 강의 잘 들었습니다. 근데 강의를 들으면서 제가 내린 결론은 ‘내가 목회하는 교회에서는 제자훈련이 안 된다’입니다. 제자훈련을 제대로 하려면 목사님이 목회하는 강남, 서초동 같은 교육 수준도 높고 생활 수준도 안정된 여러 가지 면에서 여유 있는 교인들을 데리고 해야지 저같이 인천 달동네에서 새벽부터 함 지이고 시장에 나가 밤중에 들어오는 사람들 데리고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느껴지는데, 목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질문에 대한 옥한흠 목사의 대답은 우문현답(愚問賢答)이었다. “목사님, 만일 옥한흠 목사라는 사람이 지금 목사님께서 목회하는 인천 달동네에서 목회를 하고 있다면 제자훈련을 할 것 같습니까? 안할 것 같습니까?” 그런데 이 질문에 대한 명확한 대답이 되는 교회가 있다. 바로 오늘 소개하는 은혜교회다.

마의 삼각지(三角地)와 인천 삼경(仁川三景)

은혜교회의 주변에는 대형 교회인 주안장로교회, 인천순복음교회, 송의감리교회가 각각 5분 거리 안에 있다. 개척해서 살아남기 어려운 마의 삼각지에 끼어 있는 교회다.

한때 동양에서 제일 큰 교도소였던 ‘인천교도소’, ‘윤락가’, ‘판자촌’이라는 인천 삼경이 모두 위치해 있던 학익동은 박정식 목사가 고물상 부지 15평을 50만원의 임대료로 일 년간 임대해 천막을 치고 개척할 당시, 나무를 때서 밥을 짓고 비포장도로에 우마차가 한가롭게 다니던 곳이었다. 박 목사의 가정 뿐만 아니라, 성도 대부분이 문짝이 떨어지고 들어갈 면 엉덩이가 다 보이는 공중 화장실을 써야 하는 형편이었다.

30년, 돌이켜보는 은혜

2016년 올해는 은혜교회가 창립 30년이 되는 해다. 그동안 청, 장년 출석 교인이 4,500명, 교회학교 출석 학생이 1,500명으로, 매주 6,000여명이 출석하는 교회로 성장했다. 지난 30년간 부흥 숫자와 더불어 특이한 점은 은혜교회가 성장의 열매를 맺으면서도 여전히 건강하고 젊다는 점이다.

은혜교회는 담임목사를 제외하고 유급 교역자나 직원이 없다. 70여 가지 교회의 모든 사역을 제자훈련으로 무장된

평신도지도자(Step Leader)들이 맡아 섬긴다. 225명의 순장들이 251개의 장년 소그룹을 섬기고, 청년부에도 68개의 소그룹이 편성돼 있다.

20대 이상 성도들의 분포도를 보면 20대 성도들이 13%, 30대 성도들이 26%, 40대 성도들이 17%, 50대 성도들이 24%, 60대 성도들이 16%, 70대 성도들이 4%를 이뤄 여전히 젊은 교회라는 것을 잘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은혜교회는 어떻게 척박한 환경 속에서 이런 풍성한 열매를 거둘 수 있었을까? 지금부터 그 은혜의 여정을 되짚어 보자.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인생

박정식 목사는 대대로 우상을 섬기던 집안에서 태어났다. 위로 형들이 셋 있었지만 모두 차례로 세상을 떠났고, 박 목사도 어렸을 때부터 몸이 약했다. 그래서 아들 하나 살리고자 하는 심정으로 박 목사의 어머니는 우상숭배에 굉장히 깊이 몰입했다.

그러나 박 목사가 20대 초반에 군대에 가려고 신체검사를 받았을 때까지 군의관이 5천 원을 쥐어 주면서 “이거 갖고 밥 사먹고 힘내”라고 할 만큼 병세가 안 좋았다. 결국 큰 병원에 가서 진찰받았는데, ‘석 달밖에 살지 못한다’라는 시한부 선고를 받았다.

그런 가운데 주님을 만나, 하나님의 은혜로 치유되는 경험을 했다. 그랬기에 받은 은혜를 갚겠다는 일념으로 신학교에 진학했고, 빈민목회를 꿈꾸며 아무 연고도 없던 학익동에 천막 교회를 개척한 것이다.

성령으로도 넘어설 수 없었던 은사 중심 목회

개척 첫 주간에 비전을 따라 방석 50개를 깔았지만 곧 다 걷어야만 했다. 11시 예배 시작시간까지 문을 열고 ‘주님이 얼마나 보내 주시는지 보자’ 하며 기다렸지만 아무도 오지 않았다. 결국 사모와 부모님과 아이들을 데리고 예배드렸다.

개척 3개월 만에 지하 25평 예배당으로 이사를 갔지만 그 해 여름 장마 때 지하 예배당은 빗물에 침수돼, 모든 기구가 물에 잠기고 말았다. 그런 어려움 중에도 아침부터 저녁까지 열심히 전도한 결과, 2년 만에 30여 명이 모였다.

그러나 모인 사람들은 하나같이 가난하고, 억눌리고 삶에 고달픈 힘든 사람들이었다. 교인은 30명인데 300명 교인을



목회하는 것보다 더 힘들었다. 저녁마다 철야하고, 밤 10시부터 신유기도회를 인도했다.

죽을병에 걸렸다가 은혜로 치유받고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으니 얼마나 은사 중심 목회에 심취했겠는가. 방언도 터지고 환상도 보고, 예언 기도도 했지만 결과는 참담했다. 성도들은 은사를 많이 경험해 기도할 때 나름대로 열정은 있었지만 도무지 삶이 변화되지 않았다. 성도들은 은혜를 받았지만, 조금 지나면 서로 싸우기 일쑤였다.

믿는 사람 싸움에 목사 등 터지는 심방 목회

모이면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기도 끝에는 꼭 갈등이 있었다. 서로 예언기도 해 준다고 하면서 속에 있는 한을 기도에 쏟아 내거나, 평상시 상대방에게 갖고 있던 불만들을 기도로 위장해 쏟아낸 것이다. 그러다 보니 집회를 마치고 다음 날 아침이 되면, “아무개 때문에 나 교회에 안 간다”라는 전화가 오기도 했다. 30명 교인들을 대상으로 목회를 하는데, 믿는 사람 싸움에 그야말로 목사 등 터지는 상황이었다.

그중에 남편에게 모질게 매를 맞는 분이 있었는데, 아이들이 밤늦게 울면서 찾아와 “우리 엄마, 아빠 죽는다” 해서 가 보면, 여자는 방바닥에 널브러져서 “죽여라, 죽여” 하고 있고, 남자는 가스를 틀어 놓고 라이터로 위협하기도 했다. 화해시켜 놓으면 칼 들고 박 목사에게 찾아와 “목사가 괜히 살게 해서 우리가 이렇게 또 다시 싸운다”라며 술 먹고 밤새도록 투정하기도 했다.

한번은 부부싸움을 하다가 남편이 무릎에 대고 아내 팔을 툇 부러뜨려서 아내가 팔이 완전히 꺾인 채 교회로 달려왔다. 그를 데리고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게 해 줬는데, 그 다음

주에 시험이 들어 교회 출석을 하지 않았다. 그래서 심방을 갔더니 ‘어떤 년은 팔자가 좋아서 목사 남편 만나서 잘 살고, 어떤 년은 팔 부러져서 병원 다니냐!’라며 나쁜 감정이 생겨 예배 참석도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저녁에 교회 모이면 방언 터지고, 예언을 하고, 임신하고 돌아간 사람들이 집에만 가면 싸웠던 것이다. 초대 여전도회장의 경우 철야 후 집에 들어오지 않았다는 연락을 받았는데, 알고 보니 춤바람이 나서 철야 후 카바레로 갔단다. 구역예배를 인도하고 오면 조금 있다가 싸움이 났다고 전화가 왔다. 구역예배 드리고 교제한다고 모여 있다가 고스톱 치면서 싸운 것이다. 그렇게 시험이 들어 교회에 출석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다. 내면의 상처가 썩뿌리로 자라나는 한계투성이 목회 현장이었다.

“나 이제 목회 안한다. 때려치우자!”

결국 목회를 그만뒀야겠다는 결심을 한 박 목사는 주님께 보고하기 위해 일주일간 금식을 작정하고 기도원으로 올라갔다. 그리고 기왕 금식하는 김에 신약성경이라도 읽고 내려가자는 생각에 성경을 읽기 시작했다.

그런데 전에는 보이지 않았던 것이 보이기 시작했다. 그것은 “예수께서 가르치셨다”라는 말씀이었다. 그 전에는 성경을 보면 ‘제 눈에 안경’이라고 죽은 자를 살리고,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기적만 보였다. 그런데 그날은 “예수께서 가르치셨다. 가르치셨다. 가르치셨다.” 심지어는 주님께서 베푸신 이적조차도 가르치신 것을 확증하기 위해 사용할 때가 대부분인 것이 보였다. 사복음서를 읽으면서 동그라미 쳐 보았는데, ‘가르치다’와 기적이나 이적의 비율이 9:1의 빈도로 나타났다. 그나마 10% 기적과 이적도 90%를 위해 있었다. 박 목사는 적잖은 충격을 받았다.

성령운동가들의 유일한 텍스트인 사도행전을 읽으면서도 성령이 임하신 이후 그들이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거기서 3천 명, 5천 명이 돌아오자 은사집회하고 방언하는 것으로 그친 것이 아니라, 그들을 가르쳤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12장

부터 세계 선교, 이방 선교로 방향이 전환되면서 조금씩 이적에 대한 빈도가 적어지고, 가르침에 대한 역사가 더 강화됐다. 특히 박 목사가 제일 놀랐던 것은 사도행전 28장이었다.

그렇게 대단했던 바울 사도가 로마 감옥에 감금돼 마지막 순간에 한 것이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행 28:30~31)였다. 이것이 성령행전이라고도 불리는 사도행전의 끝이었다. 박 목사는 충격을 받았다. 그리고 ‘지금 신사도행전 29장을 우리가 쓴다면 어떻게 써야 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결국 동일선상에서 출발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해답을 얻었다.

박 목사는 금식기도 후 “가르쳐야겠다”라고 결심했다. 그때는 제자훈련도 몰랐고, 구체적으로 뭘 가르쳐야 할지에 대해서도 대안이 없었다. 그래서 서점에 나가서 C.C.C 10스텝, 네비게이트 교재 등을 구입해 급조한 커리큘럼으로 1기 제자훈련을 시작했다. 타 교회에서 집사직을 받고 은혜의교회에 등록한 16명을 대상으로 출발했는데, 몇 주 지나지 않아 한 두명씩 탈락하거나 교회를 떠나갔다. 결국 1년여 만에 1명이 수료했는데, 바로 박 목사의 사모였다.

『평신도를 깨운다』를 만나다

박 목사는 옥한흠 목사를 잘 몰랐다. 그래서 『평신도를 깨운다』를 만났을 때 깜짝 놀랐다. 박 목사가 목회 현장에서 씨름하며 배운 것을 누군가 먼저 깨닫고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줬기 때문이다. 『평신도를 깨운다』에는 옥 목사의 고뇌와 열망이 담겨 있었다. 수십 번 읽으면서 ‘교회는 이렇게 세우는 것이구나’, ‘이렇게 해야겠구나’라는 깊은 깨달음을 얻었다.

이후 박 목사는 매주 월요일마다 사랑의교회를 찾아갔다. 사랑의교회 본당에 들어가서 기도하다가 어쩔 땐 잠을 자기도 했다. 그러면서 사랑의교회의 영성을 예배당 분위기에서부터 온 몸으로 느끼려 했다. 돌아갈 때는 교회 주보와 여러 훈련 자료들을 수집해 교회에 접목했다.

제자훈련지도자세미나(이하 CAL 세미나)도 참여하고 싶었지만, 당시 교회는 가난한 개척 교회 형편에서 다음 세대 선교를 위해 선교원을 운영하고 있었다. 원아들의 등하원 셔틀버스 운행에 박 목사가 직접 했기 때문에 한 주간 시간을 내어 세미

나에 참석하는 것이 여의치 않았다. 그래서 책을 읽고, 교재를 구해 훈련하는 방식을 사용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다 마침내 1992년에 CAL세미나에 참여했다.

CAL세미나에서 박 목사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비전이 옥한흠 목사에게 주어진 비전과 동일하다는 사실에 대해 놀라며, 도전도 받고 검증받는 시간을 가졌다.

제자훈련의 능력, 말씀의 권위

사실 은혜의교회에서 3기까지 제자훈련을 받고 에셀리더(교구장)로 섬기는 성도들은 고등학교 졸업이 최고 학력이었다. 초등학교 졸업, 중학교 졸업 학력을 가진 이들도 꽤 있었다. 그런데 이들에게는 대학교를 졸업하고, 유학을 다녀온 사람들까지 품는 능력이 있었다. 박 목사는 제자훈련을 통해 말씀의 권위라는 것이 얼마나 강한지 목회 현장에서 생생하게 경험했다.

세상적으로는 못 배운 사람들이기에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능력 있는 동역자들이 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 일반적인 생각이겠지만, 그들은 누구보다도 교회 비전에 대해 열정을 가지고 헌신하는 사람들이었다.

한번은 순원이 새로 아파트에 입주했을 때 교구장 한 사람이 “야, 이태리가 참 좋네”라고 했다는 것이다. 그 교구장은 유식한 척하고 싶어 한 말인데, ‘인테리어’를 ‘이태리’라고 한 것이다. 그럼 유학을 다녀온 사람은 “교구장이 어떻게 이런

게 무식할 수 있는가?” 하며 충격을 받는 것이다. 그런데 그렇게 놀란 성도는 교구장이 말씀으로 성도들을 섬기는 자세를 보며 다시 한 번



놀라게 된다. 교구장의 모습이 주님을 직접 대면한 사람 같았기 때문이다. ‘학벌이 문제가 아니구나. 인테리어를 이태리로 발음할지라도 저분에게는 말씀에 대한 열정이 있고, 그 속에 은혜가 있구나’라는 것을 느끼기 때문에 결국 그의 영혼에 변화가 찾아온다. 이것이 은혜가 돼 ‘나는 도대체 뭐가? 이 학벌 가지고 뭐하고 있는 거지?’ ‘나는 빛진 자 아닌가! 혜택을 받았으면 혜택을 좀 나눠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나름대로의 목마름이 생겨 그도 결국 섬김의 자리로 나아와 헌신하게 되는 것이다.

일당 백의 평신도 동역자

은혜의교회도 처음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실제로 기존 성도들이 새로 온 성도들을 쫓아내는 상황도 있었다. 그런데 제자훈련을 통해 좋은 토양이 만들어지기 시작했다. 교회를 어떻게 섬길 것인가에 대한 마인드가 형성됐고, 교회를 위해 우리가 함께 죽어야 한다는 마음이 공유되기 시작했다.

교회에 대한 애착심이 생겨나기 시작하자 제자훈련 수료생 한 명이 열 명을 감당하고, 나중에는 백 명을 감당할 정도가 됐다. 이것은 하루아침에 된 것은 아니지만, 목회자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에 사로잡혀 주님을 위해 주님의 진정한 목적을 이루고자 애쓰자 선한 결과가 나타난 것이다.

이젠 은사를 거둬가도 좋습니다

이처럼 훈련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자 박 목사는 “이젠 은사를 거둬가도 좋습니다. 어느 정도 교회가 준비될 때까지는 계속해서 은사라는 말이 나오지도 않게 하소서”라고 기도하기도 했다. 어떻게 보면 너무 교만한 말로 들릴지도 모를 이야기지만, 박 목사는 목회 초기에 그만큼 은사에 대해 좌절과 고통을 많이 겪었기 때문에 차라리 그런 좌절과 고통을 겪을 거라면 아예 은사가 없는 것이 낫겠다고 생각한 것이다.

성경대로 목회하는 급진적인 교회(Radical Church)

은혜의교회는 제자훈련의 대현장이라고 할 수 있는 성경구절대로 목회하는 교회다. 박 목사나 교회의 성도들이 원하는 바



는 말씀대로 살고, 말씀대로 훈련하고, 말씀대로 섬기는 교회가 되는 것이었지만, 오늘날 교회의 현실을 보면 말씀대로 살고, 말씀대로 훈련하고, 말씀대로 섬기는 것이 급진적인 삶, 급진적인 제자훈련, 급진적인 교회의 모습으로 비쳐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은혜의교회는 급진적인 교회이다.

목회자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제자훈련 사역에 집중하고, 온전해진 평신도가 사역해 교회를 세우는 구조다(엡 4:11~12). 은혜의교회에는 온전해진 평신도가 ‘Step Leader’가 돼 전임사역자 이상으로 자원봉사하며 이끌어 가는 사역이 70여 가지에 이른다. 또 어느 누구든지 준비된 사람이 특별한 달란트를 가지고 섬기기 원하면 그 한 사람을 위해 사역 파트를 만들 수 있을 만큼 준비가 돼 있다. 그렇다면 은혜의 교회는 어떻게 이런 급진적인 교회가 될 수 있었을까?

제자도의 기준을 상향 조정하다

은혜의교회는 지금까지 제자훈련을 하면서 1년 커리큘럼으로 제자훈련을 진행하지 않았다. 참 제자가 되는 것이 중요하지, 커리큘럼을 수료했다고 해서 제자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전도폭발훈련도 마찬가지다. 전도의 열매를 맺어야 제대로 된 전도훈련이 된 것이지, 과정을 이수했다고 해서 전도의 폭발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

사역훈련도 광야순장(개척소그룹)으로 파송돼 영적으로 한 가정을 일으켜 세울 만큼 영적 내공이 있어야 수료자의 자격조건, 순장으로 파송될 만한 자격조건을 갖춘 것이다. 그래서 무조건 광야순장(개척소그룹)으로 파송한다. 박 목사는 순장이란 한 주간에 두 번은 노방전도 현장에 동참해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2014년부터 광야순장으로 파송돼 현재 11명의 순원을 섬기는 권중우 집사는 목요일 사랑방(소그룹)에 참여하지 못하는 순원이 생기면 그 다음 날, 시간을 내 꼭 찾아가서 개인적으





로 사랑방 모임을 갖는다. 그러기에 순원들도 사랑방 모임 출석을 당연하게 생각한다.

2012년도에 제자훈련을 수료하고 광야순장으로 파송된 김영란 집사도 처음에는 초인종 누르는 것이 두려운 사람이었고, 초인종을 눌러도 사람이 나오지 않기를 바랐지만, '이 집이 마지막이다'라고 생각하고 초인종을 누른 집에서 만난 한 자매를 전도하면서 그 집안의 언니 두 명, 동생과 제부, 부모까지 모두 구원하는 역사를 경험했다. 이런 생명 살리는 경험과 은혜 경험이 김 집사의 섬김의 동력이 돼 그녀는 지금도 전도 현장으로 향하고 있다.

그래서 은혜의교회에서 가장 무서운 말은 “집사님, 베델성서대학 다니시잖아요.” “집사님, 제자훈련 받으시잖아요.” “집사님, 사역훈련 받으시잖아요.” “집사님, 순장님이시잖아요.” “집사님, Step Leader시잖아요”라는 말이다. 그 말에는 그에 걸맞은 삶과 사역의 열매를 맺어야 당연하다는 나름의 기준과 수준이 적용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은혜의교회에서는 무언의 기준이 설정돼 있다. 집사 직분을 받으려면 온전한 십일조를 드려야 하고, 주중 헌신과 주말 헌신을 어느 정도로 해야 하는지, 베델성서대학을 수강하는 사람은 어느 정도 헌신해야 하는지, 제자훈련과 사역훈련을 받는 사람은 어느 정도 헌신해야 하는지, 순장으로 파송되고, Step Leader가 되고 나면 어느 정도 헌신해야 하는지 모든 성도가 다 알고 공유하는 기준이 됐다. 문서화돼 있지는 않지만 암묵적으로 동의하고, 요구하는 그 높은 제자도의 기준이 은혜의교회의 물줄기를 잡아가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은혜의교회 성도들은 담임목사를 비롯한 영적인 선배, 영적인 리더들을 절대적으로 신뢰한다. 그분들의 앞과 뒤가 동일하기 때문이다. 그들이 먼저 주님을 붙좃는 제자라는 것을 흔들림 없이 확신하기 때문이다. 현재 제자훈련을 받고 있는 이정미 집사도 “그런 훌륭한 신앙의 전통과 흐름을 다음 세대에게도 잘 전수해 주기를 원한다”라는 소원을 품고 제자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



교회의 문턱을 높이다

은혜의교회는 5주 과정의 새가족 모임을 수료해야 교회 등록을 할 수 있다. 부흥을 원하는 교회라면 교회의 문턱을 낮추고 대문을 활짝 열어야 할 텐데, 오히려 교회 문턱을 높이고 출입문을 좁혀 놓은 것이다. 교회의 문턱을 높인 이유에 대해 박 목사는 이렇게 말한다.

“저는 사실 기존 신자들을 달가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존 신자들은 이미 교회에 대한 많은 상처와 부정적인 성향을 갖고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반면 초신자들은 교회에 발을 들여놓기가 어렵지, 첫발걸음을 내딛고 난 다음에는 교회가 지도하는 대로 믿음을 키워갑니다. 이미 머리가 굳어지고, 가슴이 화석처럼 굳어진 기존 신자들은 자신의 생각과 논리로 교회와 목회자를 판단합니다. 그래서 은혜의교회는 5주 과정의 새가족반을 진행하면서 노골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은혜의교회는 이런 목회 철학이 있다. 선택할 것이냐?’ 그리고 5주가 끝나기 전에 결단하고 등록하게 합니다. 우리 교회의 비전을 이야기하고, 목회 철학을 이야기하면, 등록하지 않고 떠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신자들의 가슴 속에는 ‘우리를 말씀으로 가르쳐 주십시오, 우리를 우습게 보지 마십시오, 우리를 가르쳐서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도록 키워 주십시오’라는 열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의교회를 찾아 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2005년에 광야순장 1호로 파송된 정선희 집사도 이렇게 고백한다. “우리 교회는 전도하기가 참 좋습니다. ‘우리 교회에 한번만 와 보라’고 했을 때 첫발걸음을 내딛는 것은 어렵지만 일단 발걸음을 내딛고 나면 낙심하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목사님의 설교를 들을 때 은혜를 많이 받고, 예배의 감격을 회복하며, 헌신된 평신도지도자들을 보며 감동합니다. 한번 참석하기는 힘든데 한 번 참석하고 나면 정착률이 매우 높습니다.”



될 때까지 가르친다

은혜의교회는 기존 신자가 등록할 경우, 절대로 하루아침에 직분이나 위치를 주지 않는다.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교회를 옮겨 온 기존 신자들에게는 상처와 왜곡된 시선이 많기 때문이다. 그래서 베델성서대학과 전도폭발, 제자훈련, 사역훈련을 받으며 성장할 때까지 그들을 내버려 둔다.

어떤 성도들은 ‘이 교회는 우리를 사람취급도 안하느냐?’면서 서운한 감정을 드러내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우리 교회’, ‘우리 목사님’이라는 표현이 자연스럽게 나올 때까지는 아직 제대로 은혜의교회 성도가 되지 않은 것이다.

‘우리 교회’라는 마인드를 가진 사람이 그만큼 형성되고, 그들이 또 ‘우리 교회’라는 마인드를 가진 사람들을 세워 가는 구조가 돼야지 ‘우리 교회’라는 마인드를 가진 성도보다 ‘이 교회’라는 마인드를 가진 성도가 일정 비율을 넘어 버리면 교회의 비전이 왜곡될 위험이 있다.

“사람이 희망이에요. 사람에게에는 변화의 아름다운 가능성이 있습니다. 놀라운 가능성 말입니다. 전 그래서 사람이 너무 아름답다고 생각합니다. 남자들도 변화됩니다.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그래서 박 목사에게는 늘 사람을 키워 내야 한다는 조급함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하루아침에 길러지지 않기 때문에 끊임없이 자신을 내려놓고, 먼저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기 위해 뼈를 깎는 수고를 그치지 않는다. 그리고 순장들이 양육되는 것만큼의 부흥만을 원한다. 그 이상 부흥을 하면 영혼들을 다 담당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은혜의 교회가 성장해 온 발자취를 되돌아보면 쉽지는 않았지만 한번 가속도가 붙은 이후에는 그 속도가 놀랍다는 것을 누구나 인정하게 될 것이다.

한번 세우면 철저하게 위임한다

박 목사는 교회의 모든 사역을 시작할 때 섬길 사람이 준비되지 않으면 억지로 사역을 시작하지 않는다. 그리고 사역을 위임하고 나면 철저하게 위임한다. 실수를 하더라도, 대가를 지불하며 배우게 한다.

박 목사의 임파워링 리더십(Empowering Leadership)을 알 수 있는 몇 가지 예가 있다. 어떤 사랑방의 순원이 순장에 대해 불평하면서 순장을 바꿔 달라는 요청을 한 때가 있다. 그때 박 목사는 불평하는 순원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다. “순장을 바꿔 줄 수 없습니다. 정 다니기 싫으면 다른 교회로 가세요. 그 사랑방에서 믿음생활 똑바로 하지 못하면 다른 순장이 와도 똑바로 신앙생활 할 수 없습니다.”

한번은 동역자 중에 한 분이 박 목사에게 찾아와 “목사님, 주일 예배를 드리는 시간에 젊은 부부들이 예배의 감격을 누리도록 신생아를 돌봐 주는 섬김을 하면 어떨까요?”라고 제안했다. 그러자 박 목사는 “집사님께서 맡아서 섬겨 주세요”라고 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그 일은 평신도들의 섬김을 통해 교회의 중요한 사역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박 목사는 사역의 필요가 눈에 보인다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사명으로 주신 것이고, 그 사역을 감당할 만큼 준비가 됐다고 판단하는 것이다.

우리는 한 가족

은혜의교회는 철저한 하나님의 권속의식, 한가족 의식이 교회를 이끌어 가고 있다. 박 목사는 개척 초창기 대학교수로 재직하는 성도가 자녀들의 학업을 도와주겠다고 제안했을 때도 내 자녀만 그런 혜택을 누릴 수 없다고 말하며, 교회 안에 '방과후 학교'를 개설했다. 이것이 발전해 오늘의 '그레이스 아카데미'라는 대안학교가 됐다.

지금은 교회를 위해 10년, 20년 헌신한 평신도지도자들의 노후를 염려하며 요양병원을 세우고, 공동체사역을 통해 노후의 삶을 공동으로 대처해 가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그만큼 교회가 영적인 공동체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전인적인 삶을 나누고, 함께하는 공동체인 영적 가족이기를 원하는 마음의 열정이 표출돼 열매 맺고 있는 것이다.

박 목사는 이렇게 말한다. “지금 10년 넘게 함께 사역하는 분들은 제 눈빛만 봐도 제가 어떤 생각을 하는지 알고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로요. 제가 예배드리다가 대중을 한 번 훑어보고 쳐다보면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는지 그분들이 압니다. 그만큼 하나가 된 것이지요.”

사람이 희망이다

박 목사도 목회 초기에는 사람이 징글 징글 했다고 한다. ‘저 얼굴을 또 봐야 하나?’, ‘교회도 많은데 왜 안 가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사람도 있었다. 그러다 제자훈련의 열매를 보게 된 것은 훈련 5기째부터라고 한다. 그 전까지는 매번 실패했다. 그런데 제자훈련을 하면서 사람이 변화되는 것을 경험하고는 생각이 바뀌었다.

“사람이 희망이에요. 사람에게에는 변화의 아름다운 가능성이 있습니다. 놀라운 가능성 말입니다. 전 그래서 사람이 너무 아름답다고 생각합니다. 남자들도 변화됩니다.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제자훈련은 목사 스스로를 죽이는 과정

“제자훈련은 어떻게 보면 목사 스스로를 죽이는 과정입니다. 목사의 유익과 목사의 가치관과 이기심과 야망을 철저히 죽이고, 주님을 향해서 나아가도록 바뀌 가는 과정이 제자훈련입니다. 그러므로 제자훈련은 ‘한 사람을 가르쳐서 그들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어떻게 그들을 동역자로 세워 교회를 부흥시킬 것인가?’라는 것이 우선이 아니라, 먼저 목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무릎을 꿇고 주님께서 가신 그 길을 따라가며 ‘나를 따르라’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가 되는가 제자훈련의 진정한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박 목사는 지난 세월 한 영혼에 초점을 둔 제자훈련 사역에 목숨을 걸었다. “옥한흠 목사님께서 생전에 전화하셔서 저한테 그러셨어요. ‘박 목사, 무리하지 마. 그러다 큰일 나. 너무 미쳤어’ 그런데, 저는 그 말이 우리 주님이 주시는 칭찬 같았습니다.”

박 목사는 성도들이 이사갈 때 교회를 선택하는 기준으로 반드시 요구하는 것이 있다. “교파나 다른 어떤 것도 보지 말고 세 가지를 보세요. 첫째는 제자훈련을 하는 교회인가. 둘째는 예배의 감격이 있는 교회인가. 셋째는 전도하는 교회인가. 이 세 가지만 보면 교단이 달라도 이단이 아니면 선택하세요.” 은혜의교회는 박 목사가 교회 선택의 원칙과 기준으로 제시한 기준을 모두 갖춘 교회다.

박 목사는 “참된 부흥은 하나님으로 충만해지는 것이다”라는 찰스 피니의 말을 인용하며 이렇게 부흥에 대해 도전했다. “성도가 두 명, 세 명만 모여도 정말 그들 속에 하나님으로 충만하면 그 교회는 부흥한 교회입니다. 만 명이 모여도 그들 속에 하나님으로 충만한 사람이 적다면 부흥하지 않은 교회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은혜의교회는 수적으로만 부흥한 교회가 아니라 적박한 이 시대에 참된 부흥을 경험하고 있는 교회다. 

〈박주성 목사〉

